

중국 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 -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권태환**, 박광성***

1990년 이후 중국 조선족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그 핵심에는 조선족 공동체의 총체적인 재구조화가 자리하고 있다. 조선족 집거지로부터 대규모의 이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던 조선족은 전 중국으로 흩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이동은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현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인구이동이 조선족 사회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영향은 이동의 기원지인 농촌과 다양한 목표지의 현황과 조건,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자료는 선택된 마을의 방문과 현지에서의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조선족의 대규모, 원거리 이동이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인구유출로 도시 또는 조선족 중심지에서 떨어진 농촌 마을에서 공동체의 해체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선족은 새로운 목표지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집중현상을 보인다. 한마디로 조선족의 이동은 조선족 사회의 도시화의 경향과 함께, 보다 넓은 지역으로의 공동체의 분산과 공동체내에서의 높은 민족 집중성을 특징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조선족 도시 공동체는 거주지역의 격리보다는 민족성을 기초로 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핵심단어: 중국 조선족, 인구이동, 공동체, 정체성, 집중촌, 집거지, 연변, 동북3성, 청도

I. 문제의 배경

중국 조선족은 1990년까지만 해도 매우 안정적이고 폐쇄된 집단의 특성을 보

* 이 논문은 재외동포재단의 2002년도 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3.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의 제3장을 일부 수정하여 만든 것이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였다. 조선족은 주로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으로 대표되는 동북3성에 거주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길림성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조선족은 주로 농촌에 그들만의 마을을 형성하여 벼농사를 지으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였다.¹⁾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족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된다. 변화의 배경 요소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문화대혁명 이후에 채택된 개혁개방 정책의 실질적 효과이고, 둘째는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이다. 이 두 가지 환경적 요소는 조선족의 생활세계에 대한 관념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는 출산수준의 급속한 저하와 이로 인한 인구의 성장 추세와 구조의 변화이다. 1970년대 중반에 이미 재생산 수준이하로 떨어진 조선족의 출산력은 현재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인구감소로 인한 조선족 사회의 해체 위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조선족 사회의 위기는 거시적으로는 총인구수의 빠른 감소전망에서 비롯되지만 미시적으로는 조선족의 삶의 근거를 이루었던 농촌 촌락의 해체에서 그 문제의 절박성을 느낄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조선족 마을의 해체는 이제는 도시에 비교적 가까운 농촌과 조선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자치현서까지 광범하게 관찰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인구가입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조선족 마을이나 집거지에서도 앞날에 대해서는 매우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조선족 마을 건설에 대한 논의가 2002년을 기점으로 활발해지고 있다.³⁾

조선족 사회의 변화는 단순히 마을의 해체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문제로 귀착되지 않는다. 변화와 이로 인한 위기는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이다. 그 시작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은 인구가동과 연관된다. 마을의 해체는 인구유출에 의해 촉진되며 새로운 마을은 인구유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미 조선족 사회에는 거대한 인구가동의 물결이 형성되었다. 그로 인해 조선족 사회는 새로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있다. 그러나 조선족 사회의

- 1) 1990년까지의 중국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에 대해서는 한상복 · 권태환 (1993) 참조.
- 2) 이에 관련된 출산력 추세에 관해서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3: 12-15와 김두섭, 2003: 115-117 참조.
- 3) 가령, 2001년 1월에는 조선족 신문인 길림신문이 조선족 촌락의 해체 위기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4회에 걸쳐 “조선족 집중촌 건설”에 관한 특집 기사를 4회에 걸쳐 연재한바 있다. 또한 2003년 1월에는 장춘에서 행한 조선족 학자와 지역 및 마을 간부들,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중국조선족 특색민족문화경제 기반구축과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주제로 열린, 중앙민족대학교 한국문화 연구소에서 개최한 제9회 조선족발전 학술 심포지움과 워크숍 및 제1회 중한 녹색경제기술 합작 교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취급되었다.

위기에 관한 무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동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논의는 거의가 경험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고 따라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조선족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커다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중국에서 통계자료의 통제는 매우 심하며, 많은 사람들이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통계가 있냐고 물어보면, “없지만 있어도 전혀 믿을 수 없어요 전부 가짜입니다”라는 대답을 듣기 일쑤다. 특히 민족에 관한 통계는 더욱 얻기 어렵다. 설령 마을이나 지역의 인구에 관한 통계를 확보하더라도 그것으로 인구추세를 알기는 어렵다. 가령 마을의 인구는 현재 호구가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경우 따라서는 임시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악되나, 호구가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나가 있는 가구나 사람, 호구 없이 들어와 사는 사람은 파악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즉 법적인 정의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크다. 특히 이동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농민호구를 도시호구로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은 호구와 실제 거주 사이에 광범한 불일치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식적인 자료를 이용한 인구이동의 연구에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이동은 주로 기원지와 목표지 사이의 거주지 이동으로 정의 된다. 보통 거주지 이동은 삶의 터전의 이동으로 개념화되지만, 최근에는 국제 노동력 이동이 보편화되면서 일시적인 노동력 이동이 국제적으로는 물론 한 국가 안에서도 널리 관찰된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한국으로의 노동이동과 중국 내 대도시로의 노동이동 중 상당한 부분이 이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개인 이동의 경험은 그들이 원래의 기원지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다시 이동을 하게 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인구이동은 일단 커다란 흐름이 형성되면 개인은 그 흐름에 저항하기 어렵다. 기원지의 인구와 자원은 급속도로 메마르고 목표지에 쌓이게 된다. 현재 중국 조선족의 경우 인구 이동으로 인한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에 관한 우려의 소리는 높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양상은 물론 이들의 이동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은 거의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바로 이점이 조선족 이동 연구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조선족은 집단 거주와 함께 주로 조선족 공동체 안에서 조선어를 쓰며 조선족과 결혼을 하며 조선족끼리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한마디로 중국을 거대한 대륙이라면 조선족은 대륙과 떨어진 조그마한 섬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동은 섬에서의 탈출을 의미한다. 많은 조선족 지식인들은 섬에

서의 탈출이 조선족 정체성의 소멸과 궁극적으로는 조선족 사회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미국의 초기 유럽이민들에 대한 연구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회적 연결망이 이동과 이동 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의 중요한 기제임을 고려할 때, 이동이 오히려 조선족 정체성을 강화시킬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일차적으로는 이동의 목표지에서의 조선족의 생활양식과 삶의 설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동은 흔히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동기로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 인구 이동의 연구는 자녀의 교육과 성공이 경제적 동기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강조는 한국과 조선족이 공유한 문화적 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족의 이동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 사회제도와 각종 이동의 여건으로 인해, 조선족의 경우, 자녀 교육의 강조와 이동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대부분 자녀 교육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자식은 기원지에 남아 있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를 남겨둔 부모들의 이주가 주는 자녀 교육에 대한 영향은 조선족 이동 연구에 있어 주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⁴⁾

그러면 조선족 공동체는 이동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동은 현재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들 질문에 대한 논의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앞날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구 이동으로 인근 소도시에 조선족 집거지가 새로이 형성되는가 하면, 조선족 아파트촌을 지어 소위 “집중촌”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이미 시작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중국 연해지구에는 조선족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족 공동체가 생기고 있다. 또한 기존 조선족 도시에서는 전통적인 도시화의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동은 조선족의 경우 다양한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뜻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의 이동의 형태와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의 배경에는 한국이라는 “민족 요소”가 깊이 내재해 있다. 보통 인구이동에서 민족 요소는 핵심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특정 시점의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이동은 한국 또는 민족 요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

4) 교육과 관련된 주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3, 제5장에서 다루고 있다.

사회적, 인구학적 요소들은 오히려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소위 사회경제적인 요소가 한국 요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족의 한국 노동이동과 경험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⁵⁾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중국 조선족의 이동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산재된 농촌 거주자들의 인근 도시지역을 향한 이동으로 이는 조선족 집거지의 도시화 현상으로 요약된다. 이는 또한 동북 3성 내에서의 이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동북3성 이외의 지역 즉 외지로의 이동이다. 여기에는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거대도시로의 이동과 청도, 위해, 연대와 같은 연해 지역으로의 이동이 포함된다. 셋째는 외국으로의 취업이동으로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으로의 노동이동이다. 이들 세 가지의 이동 중 이동의 규모와 관련되어 주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외지이동과 한국으로의 유출이다. 한편 동북 3성 내에서의 이동은 조선족 집거지의 재편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 되고 있다.

이동집단의 규모는 1차적으로는 목표지에서 이입자 수의 집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기원지에서의 이출자의 수를 집계하는 방법으로도 규모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경우 이 가운데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동의 흐름과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것은 중국 외지로의 이동자 가운데 소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즉 유동인구에 대한 가정에 따라 그 수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가령 북경의 조선족 인구를 3만에서 7만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청도의 조선족 인구를 6만에서 10만으로 추정하는 것이 그 예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 불법체류의 성격 때문에 추정에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자료에 입각해 불법체류자를 10만 명이 약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한국 남자와 혼인해 이주한 조선족 여성 약 5만 명을 합하면 한국 체류 조선족 수는 15만이 조금 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한국 체류 조선족의 수를 30만 명으로까지 추산하고 있다. 여하간 현재 동북3성의 등지를 떠나 있는 조선족은 25만에서 50만 명 사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조선족 인구의 13-26%에 해당 하는 수치이다.

기원지를 중심으로 한 이동자 규모의 파악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그것은 우선 대부분의 도시에서 먼 농촌에 흩어져 있는 조선족 산재 마을이 이미 없어졌거나 없어지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고, 중소 도시 인근의 농촌도 빠르게 와해되고 있지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현 거주 호구를 중심으로 이

5) 한국의 중국 노동자 집단에 대해서는 박광성, 2003 참조.

동 인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호구 전체 이주자들을 고려하면 각종 이동들 사이의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농촌 촌락과 도시 주민들의 이동현황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

II. 자료와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존 통계나 인구이동 조사 자료를 이용한 조선족 인구이동의 크기나 유형의 파악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인구이동과 관련된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구하기도 힘들다는 점 이외에도,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연구는 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초 자료는 주로 현지 방문과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되었다. 보완 자료로서 각종 신문에 실린 기사와 조선족 잡지와 현지에서 발간된 단행본에 실린 글을 이용하였다.

1. 현지 조사와 심층 면접의 수행

중국 조선족의 이동과 공동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나 사회조사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의 독자적인 자료 수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의 체제상 포괄적인 사회조사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지 방문 관찰과 현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위에 제시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자료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연구는 자연히 탐색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 현지 방문 면담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2001년 1월에 연변에서 마을 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곳에서의 자료 수집은 권태환과 조선족이며 연변대학 출신인 박광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모두 7개 농촌 마을을 방문하였고, 마을의 사정에 따라 집단 또는 개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마을은 연길에서의 거리에 따라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택하였다. 마을에서는 주로 마을의 인구상황, 경제문제, 가족과 혼인, 교육문제, 대도시 및 한국 이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 연길, 용정, 도문의 시내 지역에서는 주로 요식업소를 중심으로 도시화의 양상, 지역 문제, 가치관의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업소 주인 또는 종업원과 면담을 실시

하였다. 이 밖에 각종 관심 주제에 따라 해당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지 도서관에서 각종 조선족 신문에 실린 과거의 주제 관련 기사를 검색해 자료집을 만들었다. 마을과 면접대상자는 박광성이 현지의 여러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였다.

연변 이외의 지역 방문은 2003년 1-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변을 벗어난 전통적인 조선족 집거지의 변화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요녕의 심양 지역과 흑룡강의 목단강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적 조선족 마을과 함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 조선족과 최근 새로이 등장하였거나 시도되고 있는 조선족 집중촌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마을 조사는 연변에서 실시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연변에서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다양한 변화의 스펙트럼과 보다 적극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날 조선족 이동의 중요한 흐름은 소위 '한국열'과 '도시열'로 표현된다. 도시열은 다시 조선족 집거지 내에서 농촌도시 이동과 조선족 집거지인 동북3성을 떠나 중국의 관내지역의 대도시와 산업도시로의 이동으로 나뉜다. 조선족이 이동하는 관내지역 또는 외지 도시는 매우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가 산둥성의 연해지역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해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 청도를 택해 그곳에서 조선족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세계와 전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있다.

2. 문헌 자료의 이용

필요한 공식 통계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제한된 현지 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의 용도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살피기 위해 여러 가지 기존 문헌들을 이용하였다. 최근 조선족 사회변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적 연구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조선족 문헌 자료로 유용한 것은 크게 두지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조선족 신문과 잡지에 실린 기사 및 특별 기획물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족에 의해 집필된 또는 편집된 준 학술적인 글과 수필이다. 본 연구진이 참고한 신문은 흑룡강신문, 길림신문, 요녕신문의 조선문보 및 연변일보였다. 1999년도 이전 것은 주로 이들 신문, 조선족 잡지와 기획 출판물에 실린 조선족 관련 글들을 모아 한국 재외동포재단에서 1999년에 출간한 김현동주인형 (편), 『재중동포사회 자료

집』 I, II, III을 참고하였다. 한편 그 이후의 것은 예문서원에서 발행하는 월간 「예문책방」의 「연변통신」란에 발췌하여 소개된 중국 조선족 신문과 조선족 사회에 관한 한국 신문기사와 본 연구자들이 위의 4개 조선족 신문에서 직접 스크랩한 내용을 이용하였다.

그러면 이제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기존의 조선족 공동체의 변화하는 모습과 함께 새로이 형성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개괄해보자.

III. 연변 지역

중국 센서스에 따르면 조선족의 자치주 수도인 연길시(여기서는 도시지역을 의미)에서는 일종의 도시화 현상, 즉 이입 인구가 이출 인구보다 많아 인구가동으로 인한 순 인구 증가현상이 나타난다.⁶⁾ 도심지역 이주자들은 주로 젊은 연령층으로 하층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연변의 여러 농촌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광범한 인구 이출 현상이 관찰된다. 연길 지역에서는 연길시에 속하는 2개 농촌 마을, 도문 용정, 화룡에 있는 3개 농촌 합계 5개 농촌을 방문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사례1: 연길시 시내에서 가까운 IP촌

연길시 농촌지역 가운데 도시지역과 인접한 농촌에서는 소위 근교 도시화(sub-urbanization)현상이 보인다. 가령 연길시 농촌 마을인 JB향 IP촌 같은 곳은 조선족 원호구 소유자가 271 가구로, 등록인구는 859명이나 2002년 초 현재 거주 조선족 가구는 총 380여 호에 달한다.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자들은 도시지역에 사는 돈 많은 노인들이 환경이 좋은 이 곳을 찾아 새로 지은 층집(아파트)을 사가지고 이주한 경우와 연길시내의 집세가 비싸 이곳에 세를 들어 사는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마을의 한쪽 지구에는 주로 흑룡강에서 온 한족 농가 120호의 400명 정도가 들어와 돼지를 키우고 있다. 이곳 호구 소유 조선족의 연령 구성은 노동력 인구가 대략 500명, 이 가운데 40세 미만 인구는 매우 적다. 그 주 이유의 하나는 연길시 외각 도로 건설로 이 마을

6) 센서스에서 조사되지 않은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실제 도시화는 센서스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3; 표 2-5, 2-6) 참조.

의 토지가 시에 수용되면서 그 대가로 130여명의 젊은이가 성시(도시)호구를 얻어 연길로 진출한데 있다. 현 거주자의 구성은 노인인구(대개 남60세 여55세 이상)가 170명, 중학교 학생 70명 소학교 학생 100명, 5세 미만은 20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마을은 앞으로 10년 안에 성시(도시) 지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동력 인구 가운데 60%는 비농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총 호구 인구의 13%인 약 120명이 한국에 그리고 3-4%인 30-40명이 관내(동북이외지역)에 진출해 있다. 한마디로 이 곳의 총 호구 인구는 늘고 있으나 원 거주 인구 가운데 젊은 층은 현재 마을을 떠나 있고, 현 거주 젊은 층은 이곳을 생계 근거지가 아니라 기숙지로 삼고 있다. 입주 노인들에게 이 곳은 일종의 휴양 거주지의 성격이 강하다. 그것은 이 곳에 산업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비 농산업에 종사하는 60%의 호구 보유 노동력은 이곳에 들어 온 한국 기업들에서 일하거나 다른 부업에 종사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이곳을 떠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경제적인 성공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 서기는 이곳이 연길 시내로 편입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아직 토지사용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실제 대도시로 나간 젊은이들이 기술이 없고 언어의 문제도 있고 해 그곳에서 정착에 성공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례2: 연길시의 외곽 농촌 SD촌

연길시 농촌 지역 가운데 연길시내에서 떨어진 농촌이나 연길시내에 비교적 가까운 연변의 다른 지역 농촌의 경우 대체로 거주 가구 수는 유지하나 원 호구 보유 젊은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다. 가령 연길시 YR진 SD촌의 경우 호구 보유 가구는 52호, 인구는 140명 정도다. 그 가운데 마을을 떠나 있는 사람은 10명으로 모두 20-30대 젊은 층이다. 이 가운데 한국 진출자는 오누이 간인 2명 뿐이고 남자 1명이 청도로 진출 하였고 남자 2명과 여자 5명이 연길로 진출하였다. 많은 사람이 한국에 가기를 바라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엄두를 못 내고 있다.⁷⁾ 인구는 40-50대가 압도적이며 60세 이상은 7명이다. 미혼 청년은 남자 4명뿐이다. 마을이 가난하여 이 곳으로 시집오려 하지 않는다. 지난 5년 동안 출생과 결혼이 없었으며 반면 지난 10년간 사망은 4명에 달한다. 최저 연령

7) 약 6만-10만 위엔 정도의 큰 돈으로 알려져 있다.

이 7세이다. 한편 외지에서 인근 입업과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 12명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거의가 이곳에서 상당히 떨어진 한쪽에 둘러싸인 조선족 농촌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주민들이 하나 둘 떠나면서 호구가 보충되지 않아 마을이 완전히 한족 마을로 바뀐 오지 마을 출신들이다.

사례3: 용정시: HR촌

연길시내에서 12.5Km, 용정시내에서 5Km 거리에 있는 용정시 HR촌은 지리적으로 도시 생활권에 속해 있다. 현재 이곳에는 70여 호에 300여명이 살고 있다. 1980년대 초의 인구는 약 360명이었다. 약 20여명이 한국에 진출해 있고 그 가운데 제일 어린 사람이 23세, 나이든 사람이 65세이다. 40세 이하가 대부분이고 남자가 많고 대부분이 결혼을 하였다. 이 가운데 한국에 시집간 사람이 5명으로 그중 1명이 31세이고 나머지는 20대이다. 20대 여성 1명이 싸이판에 나가있고 이혼하여 친정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 밖에 국내 진출자가 10여명으로 주로 청도에 진출해 있고 상해 등지에도 나가 공장이나 노동현장,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나이는 대개 30세 전후로 한달 수입은 600-700원 정도다. 여자가 많고 여자들은 모두 결혼한 상태이고 남자는 2명이 미혼이다. 거의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다.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는 미혼 처녀는 없고, 일거리를 찾지 못해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한 총각들은 10여명 있다. 결혼을 못하는 첫째 원인은 가난이다.

이곳에서는 외지인의 이주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원주민 가운데 호구 이주가구가 생길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이주는 받는다. 이렇게 이주해온 가구가 지난 10년간 5-6호에 달한다. 이 마을이 연길과 용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농촌에서 이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한국 진출을 원하고 있으나 가난하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주저앉아 있는 실정이다.

사례4: 도문시 RS촌

RS촌은 도문시내에서 20Km, 훈춘시내에서 40Km, 연길시내에서 45Km 떨어진, 그러나 도시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로 현재 호구 인구는 245명이나 거주 인구는 62호에 125명이다. 약 50%가 외지로 진출한 셈이다. 그 구성은 외국 진출자와 국내 진출자가 절반씩 나뉘어져 있다. 다시 외국 진출자의 절반은 한국으로 갔고, 나머지는 러시아, 일본 사이판에 가 있다. 이곳은 러시아 국경과

인접해 장사차 러시아 진출자가 많다. 국내 진출자는 청진, 광주 등의 지역 진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진출자와는 달리 이들은 대부분이 미혼으로 20대에서 30대 초반이 주를 이룬다.

이 마을에 현재 남아있는 미혼 젊은이들은 매우 적다. 여자는 거의 없고 남자는 20대 7명, 30대 5명 정도이다. 반면 외지에 나가 있는 20대 총각은 28명, 30대는 5명에 달한다. 45세에서 60세가 마을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 독보조 회원은 30명으로 이 가운데 52-60세가 12명이다. 현재 초중학생은 13명, 소학생은 10여명, 학령 전 아동은 5-6명에 불과하다. 외지 입주는 매우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지난 4년간 4호가 이사 왔다. 90년 이후 마을에서 출생은 연 1명 정도이고 2001년 이후 결혼은 외지에서 행한 것 3건 뿐이다.

사례5: 화룡시 SI촌

SI촌은 화룡 시내에서 약 40Km 떨어진 백두산 근처에 있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고 버스도 하루 한번 왕래하는, 꿈이 출현해 마을의 소를 잡아먹기도 하고 농작물에 심한 피해를 주는 깊은 산골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현재 70여호에 약 15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 호구가 없는 가구는 20호로 거주자는 65명에 달한다. 이들은 인근 한족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족으로, 주로 부업을 하기 위해 원주민이 나가 비어 있는 집을 무단 점유해 들어온 사람들이다. 밖으로 이주한 20여 호는 주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중학교가 있는 인근 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조선족 소학교가 남아있고 학생수는 20명에 달한다.

이곳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도 너무 가난하여 떠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마을을 떠난 처녀는 10여명이며 현재 마을에는 30세 이하 여성은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한명도 없다. 반면 3명의 총각이 연변과 용정으로 진출하였고, 이 마을에 거주하는 20대 총각은 10명 정도 있다. 30세 이상 총각은 7명이다. 그 가운데 2명은 배우자가 없어 탈북여성과 살고 있다. 한국으로 진출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현재 1명이 한국으로 시집하려고 준비 중이다. 30-50세 여성으로 구성된 부련회(부인회)의 성원은 40여명에 이르고 50세부터 가입되는 노인독보조에는 30여명이 있다. 이들의 2/3은 여성이다. 이혼은 거의 없다. 지난 10년 간 사망은 7-8명 정도이고 출생은 1992년 10명 정도에서 1993년 3-4명으로, 그리고 1998년부터는 1명 정도로 줄고 있다.

IV. 요녕·심양 지역

1990년 센서스에 따르면 요녕의 조선족은 23만 명으로 중국 조선족의 12%를 차지하였다. 요녕성의 조선족은 1990년 현재 심양에 83,300명, 무순에 49,500명, 철령에 23,500명, 집안에 15,800명, 단동에 15,000명, 신빈에 13,300명, 반금에 11,900명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심혜숙, 1994: 62-64). 이들 7개 지역 거주자는 요녕 조선족의 92%에 해당하였다. 현지 방문과 면담은 조선족이 제일 많이 사는 심양시의 도시지역 한 곳과 농촌 지역 3곳에서 이루어졌다.

사례 6: 심양 서탑지역

서탑은 심양의 유일한 조선족 시내 집거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서탑에는 요녕성에 진출하는 한국 자본이 모이게 되었다. 많은 조선족과 한국인의 합작기업이 세워졌고, 한국 기업 진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에 부응하여 심양 정부에서도 이곳을 한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 지구로 개발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곳은 과거 초라한 반농 반도시적인 모습을 벗고 현대식 도시 상업지구로 변모하였다. 이곳은 현재 심양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국 자본 유치를 위한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는 조선족 풍미시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 백화점, 한국, 북한, 조선족 식당과 각종 서비스 업소들이 모여 있고, 심양 시내의 유일한 조선족 중학교인 심양6중이 자리하고 있다.

흔히 이곳은 조선족 원주민과 한인이 같이 모여살고 교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 조선족 거주 공동체는 1990년대 중반 지역 개발이 시작되면서 와해되었다. 이곳 호구 소유자는 보상비를 받았으나 그 돈은 이곳에 새로 들어서는 집값의 1/6에서 1/8 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호구는 성시호구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서탑에 그대로 두고, 개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새로 짓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거의가 한족들이 사는 아파트에 살게 된 이들의 조선족과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다. 조선족 학교의 동창모임도 뜸해지고 참석률도 떨어졌다. 심지어는 조선족들과 단순한 사교를 위해 모이는 것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현재 서탑에 거주하는 조선족 가운데 호구소유자는 드물고, 거주자들은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와 세집에 사는 장사를 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조선족 풍미시장의 점포 150개 가운데 대체로 절반이 조선족이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약 80%가 외지 출신이다. 노래방, 가라오케 등에서 접대원으로 종사하는 조선족들은 거의가 외지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다. 서탑은 조선족과 한국인이 조화를 이루며 형성하는 공동체보다는 오히려 한국인 기업인들의 사업 및 거주지로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다.

한편 서탑 호구 보유자 중 한국 진출자는 한중 수교 초기 친척방문으로 입국해 약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많았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이동이 시작되면서는 거의 사라졌다. 현재 한국 진출 열풍은 물론 한국 진출자도 별로 없다고 한다. 그 주요 이유는 그들 가운데는 지식인과 간부가 많다는 점, 조선족 집거지의 해체와 조선족과의 접촉 빈도의 대폭 축소로 인한 한국 진출 압력의 약화와 정보의 빈곤, 그리고 대도시 심양의 좋은 교육조건과 농촌지역이나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 교육비 부담을 들 수 있다.

사례 7: 소가툰 YM촌

심양시의 농촌지역으로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소가툰(蘇家屯)이다. 심양시내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소가툰의 대표적인 조선족 마을이 YM촌이다. 현재 YM촌 호구보유 조선족은 450여 호에 1420명에 달한다. 1980년대에는 호구가 300호, 인구가 1200명가량이었다. YM촌의 명칭은 하나의 마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조선족을 하나로 묶어 행정 단위로 만든 데서 유래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논이나 밭에서 주로 만나 공동체적 유대감을 키워왔다.

그러든 것이 개혁개방과 조선족의 한국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족 농업 종사 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조선족들 사이의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또한 1992년부터 소가툰에서는 시내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아파트 입주금을 낼 수 있는 조선족들은 이들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족에게 배당된 아파트는 모두가 6층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1층과 6층뿐이었다. 또한 아파트에 입주한 조선족들은 한족에게 둘러 싸여 살면서, 그들과 왕래는 물론 대화도 전혀 없어 한족에 대한 공포심과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 YM촌에서 추진한 것이 조선족 중심의 아파트 개발을 통한 조선족 집거지 건설이었다. 2002년 말 현재 시내와 4Km

정도 떨어진 곳에 건설된 조선족 아파트촌인 HW신촌에 입주한 가구는 총 400호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호는 원래 주민이었고 요녕성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가구가 100호 나머지 200호는 다른 성, 주로 길림성과 흑룡강성에서 이주해온 가구이다. YM촌은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외지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의 교육이다. 이곳은 심양 시내에 가깝고 인근에 심양에서 제일 학생이 많은 조선족 중점 소학교와 함께 질이 높은 심양 조선족 2중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선족 집거지의 조선족 학교가 학생수의 급감으로 인해 폐교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반해 이곳의 학교는 학생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로 전입 학생이 많은 이곳 소학교에서도 학생수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곳 촌정부에서는 조선족 이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호구 변경을 적극 도와주고 아파트 값도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조선족 유치정책과 지리적, 교육적 이점 때문에 아파트 분양은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소가톤 시내에 장사하기 위해 세집을 얻어 이주해 오는 조선족들도 있다.

YM촌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일부 젊은이들이 높은 수입을 위해 외지로 나가 취직하거나 장사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후 한국 등 외국 진출 바람이 불어 현재에는 촌민들의 70% 정도가 외국에서 오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특히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외국 진출자의 가족이다. 외국 진출자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갔으나 일본,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노동력은 외지에 나가있고 이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식당이나 상점을 경영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3-4%밖에 되지 않는다. 이곳에서 한국으로 시집간 여성은 약 30명가량 되는데 그 중 10여명은 처녀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한국에 가기 위해 위장 이혼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귀국해 다시 결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곳은 다른 조선족 촌락에 비해 경제적 기회가 많고, 이주 선호지역이기 때문에 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일은 별로 없다. 한편 이곳에서 중국 내 다른 도시로 나간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YM촌의 조선족 출생아 수는 1984-87년에는 매년 30명 내외였다. 1988년부터 급속히 적어지기 시작한 출생아 수는 1992년부터는 4-8명 정도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2002년에는 2명을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기복이 있으나 1989년 이후 대개 5-1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조선족 인구의 자연 성장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사례 8: 심양 MR촌

심양시 DR구 MR촌은 심양시내에서 8Km 정도 거리에 있는 소가툰과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원래 전형적인 수전 농촌이었으나 1985년 이후 급격한 변화를 거쳐 2002년을 마지막으로 농업이 사라진 마을이다. 1985년에 이 마을의 가구는 760여 호에 인구는 2,600명 정도였다. 이 마을에서는 1987년부터 외지의 이주 호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1985년 이후 주민들 사이에 수전 농사와 촌 기업에 매달려서는 잘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이미 1987년 당시 마을 인구의 5%정도가 대도시 또는 중도시로 진출하여 장사 길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중 절반은 심양시내로 갔고 나머지는 관내 도시에 가 김치, 찰떡 등의 장사를 시작하였다. 외지 진출자가 늘면서 농사를 그만두는 가구가 늘었으며,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이 마을에 연고자가 있는 외지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한국 진출이 시작되었고, 1993년부터는 한국기업들이 마을의 공업지구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말 현재 MR촌의 총인구는 대략 4,640명, 가구는 1,480호 정도이다. 그 가운데 호구를 가진 인구는 843호에 2,660명이며 외지에서 이주해 들어온 경우는 500여 호에 2000여명에 이른다. 한편 이곳 호구 보유자 가운데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84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가운데 10%는 유학생이고 80%는 한국에 가 있다. 귀국하여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까지 합하면 마을 원주민 노동력의 80%가 외국인진출을 경험하였다. 현재 한 집에 한명정도 외국에 나가 있는 셈이다. 한편 중국 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동하는 경우도 본인의 취업보다는 자식이 대학 졸업 후 외지에서 취직하여 부모가 자식 곁으로 가는 정도다. 심양에 가깝고 이 마을에서는 물론 근처에서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적 기회와 전망이 매우 좋은 곳이다. 따라서 마을에 젊은이들이 많다. 3.8 부녀절에는 부녀자 300여명이 동원되고 정부 행사에는 90명의 젊은 여성이 집체 무용에 동원될 정도이다. 이혼율도 높지 않다. 이 마을에서 한국으로 시집간 여성은 약 50명으로 20명이 처녀이고 이혼하고 간 여성이 30명 정도이다. 그 대부분이 위장 이혼과 위장결혼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마을에서는, 소가툰 YM촌과 마찬가지로, 흩어지는 촌민들을 다시 모이기 위해 1995년부터 아파트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원래 촌민 중 심양시내, 인근 소가툰 시내로 이주해 갔던 사람들이 돌아 왔고 요녕성에서는 물론 다른 성에서도 조선족들이 몰려오고 있다. 한족들도 이주를 원하지만 관습이 다르고

민족관념 때문에 받지 않고 있다. 아파트 층은 경제적 기능을 갖춘 자족적인 공동체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안에 상가를 지어 분양하고 호텔, 위락 시설, 음식점 등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수입원은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노무 수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대부분이다. 이제까지 MR촌에 건설된 아파트는 모두 16개 동으로 거의가 분양된 상태이다. 2002년도에 분양된 150가구 중 100가구가 외지호일 정도로 최근에 올수록 외지인들의 입주가 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외지 입주자들은 거의가 최소 1명이 외국에 진출한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부인과 아내만 있는 가족, 할머니와 손자만 있는 가족들이 대부분이다. 외지 입주자들의 경우 원할 경우 호구 발급을 위해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심양시의 호구 통제정책으로 호구 취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표 1〉 MR촌 아파트 거주 생육계획 대상 부녀 중 외부 이입자들의 기원지 분포

| 지역 | 이입자 수 | 분포 | 주요 지구 |
|-------|-------|-------|---------------------------|
| 심양 | 29 | 17.0 | 소가툰, 신성자, 우충, 동릉, 황고 |
| 요녕 기타 | 45 | 26.5 | 신빈, 칠령, 무순, 환인 |
| 길림 | 65 | 38.2 | 매화구, 영길, 서란, 통화 |
| 흑룡강 | 27 | 15.9 | 오상, 가옥사, 상지 |
| 기타 | 4 | 2.4 | 산둥, 내몽고, 하북 |
| 합계 | 170 | 100.0 | 매화구, 신빈, 영길, 소가툰, 신성자, 오상 |

* 길림의 연변자치주: 3명(연길, 안도, 통화 각 1명)

이주자들의 이주 목적은 크게 보아 세 가지이다. 하나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배려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번 돈의 투자가치에 대한 판단이다. 셋째는 외국 진출자들의 귀국 후 경제 활동지에 대한 물색이다. 외지 입주자들의 출신지 또는 기원지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아파트의 외지 입주자 가운데 생육계획(가족계획) 대상자들의 분포로부터 짐작이 가능하다. 20-49세의 기혼 여성으로 구성된 이들의 기원지 분포를 보면 <표1>과 같다. 이주자의 대부분이 심양을 포함한 요녕성의 농촌 출신과 요녕성과 경계를 하고 있는 길림성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거리가 먼 흑룡강 출신도 16%에 달한다. 반면 중국 조선족의 중심지인 연변 출신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주자들의 분포는 소가툰 YM촌에서 얘기하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사례 9: 심양 DS향 SH툰

심양시 DS향 SH툰은 소가툰에서 15Km정도 외각에 위치한 조선족 마을이다. 이 마을은 1940년에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48년 동북지방이 해방된 후 각지에서 조선족이 몰려와 마을이 확장되어 1953년에는 가구가 총 100호를 넘었다. SH촌이 아니라 SH툰으로 불리는 까닭은 주변이 모두 한족 마을로 둘러싸여 마을 이름이 그들 식으로 불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이 마을에는 호구를 가진 가구가 749호로 인구는 2,680명에 달한다. 호구가 없는 가구도 120호 가량 되고 인구는 약 200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주 노인들이다.

호구를 가진 가구 중 150호 정도가 심양과 소가툰으로 이주하였고, 소가툰에서는 YM촌 아파트(HW신촌)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다. 마을 사람들은 이주해 나가는 반면, 요녕성 오지 마을, 가령 환인이나 신빈, 그리고 요녕성에 가까운 길림성 지역에 속하는 집안, 서란, 멀리 흑룡강성의 오상 등지의 사람들이 마을로 이주해와 마을 거주 인구는 줄지 않고 있다. 이주해 오려는 사람은 많지만 빈집이 없어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이주해온 가구는 70여 호 된다. 2년전만 해도 호구를 신청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정책적으로 호구가 동결되었다. 아파트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본이 없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마을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주민들의 경제와 마을의 발전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는 조선족 소학교가 있다. 1995년까지만 해도 학생수가 500명이 넘었다. 그러나 현재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학생수가 158명에 불과하다. 그 중 외지 학생수가 58명이다. 최근에는 일년 출생아수가 1-2명밖에 되지 않아 학교를 지속하기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학교의 존재는 마을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교의 존속이 이 마을의 최대 과제가 되어 있다. 현재 이 마을에 호구가 있는 사람 중 700여명이 외국에 나가 있다. 그 가운데 400여명은 한국에, 그리고 나머지는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멕시코 등지에 나가있다. 이 마을에서 한국으로 시집간 여성은 100명 정도이다. 호구 보유자 가운데 국내 다른 지역에 진출한 경우는 20-30명에 불과한데 주로 자식을 따라 이주하는 노인들이다. 현재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원주민은 20-30호밖에 되지 않는다. 촌의 농지가 총 5,000무인데 3,000무이상을 한족이 경작하고 있다. 마을 주민이 경작하는 농지는 600여무에 불과하고 외지 호구도 농사에는 종사하지 않는다.

사례 10: DS향 BY촌

환인이나 집안, 통화와 같은 심양에서 멀리 떨어진 요녕성의 농촌이나 요녕성에 인접한 농촌의 조선족 마을과 심양 부근이라고 하더라도 한족에게 돌려 싸인 비교적 소규모 조선족 농촌들은 급격한 공동체 소멸을 경험하고 있다. 보통 100여 호의 조선족 오지 마을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어 현재에는 10여 가구 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것도 노인들만 남아 있다. 한족 대대의 조선족 소대를 이루었던 SH툰서 멀지않은 DS향 BY촌의 경우도 100호 가운데 현재 10호 정도 남아 있고, 그들도 여건만 되면 이주할 계획이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층으로 그들은 조선족 수가 줄어들면서 한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따라서 한족과 한 마을에서 사는 것이 무섭다고 한다.

V. 흑룡강성

1990년 센서스에 따르면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는 총 조선족의 23.6%에 달하는 454,000명이었다. 1982년 인구 비율과 비교할 때, 흑룡강성은 연변 자치주를 제외한 길림성과 함께 약간의 비율의 감소를 보였다. 한편 2000년의 흑룡강성 조선족 인구는 388,500명, 20.2%로 조사되어, 1990-2000년의 10년 동안에 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상당한 정도의 인구 감소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호구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이동의 정도를 바르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나 흑룡강 지구에서 이출이 시작되었고, 최근에 이출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 볼 수는 있다.

1990년 자료에 의하면 흑룡강성에서 조선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영안, 해림, 오상, 목단강으로 여기에는 각기 33,500명에서 30,500명이 거주하였다. 다음 2만명대 거주 지역으로는 밀산, 계동, 상지가, 그리고 만명대 거주지역으로는 수화지구, 목릉, 아성, 계서, 연수, 동녕이 있다(심혜숙, 1994: 63-64). 이들 지역 거주자는 총 흑룡강 조선족의 61%에 달한다. 이는 흑룡강 조선족이 대부분 농촌 중심으로 거주하고 상당히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흑룡강 조선족은 함경도 출신이 압도적인 연변이나 평안도 출신이 다수인 요녕성과는 달리 남한지역 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를 위한 현지 면담은 주로 목단강과 해림에서 이루어 졌다.

사례 11: 해림 도시지역

약 32,000명의 조선족이 거주하는 해림시에는 원래 38개의 조선족 마을이 있었으나 오지 마을들에서 급격한 인구 및 호구 이출로 현재에는 22개 마을로 합병되었다. 해림시에서는 9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 진출한 사람이 6,000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4,000명 정도가 산업연수생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3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한국 진출자 가운데 여성이 60%를 차지한다. 시에서 직접 선발하여 보낸 산업연수생을 보면 1999년 280명, 2000년 340명, 2001년 260명, 2002년 270명으로 1999-2002년의 4년간 1,150에 달한다. 해림시 당국은 조선족의 해외 진출에 매우 호의적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송금과 귀국 후 그들이 무는 벌금이 취약한 시 재정과 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산업연수이외의 개인적인 친척방문이나, 혼인을 통한 한축진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해림시에서 조선족이 집중되어 있는 해림진은 조선족관련 정책으로 집거구 또는 집중촌 건설을 주요 과제로 내 세우고 있다. 원래 이곳에는 행정적으로 조선족 마을이 9개 있었으나 호구 및 인구 이출과 출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마을의 소학교들이 폐쇄됨에 따라 5개촌으로 통합되었다. 앞으로도 통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현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너도 나도 한국에 진출하거나 외지로 나갈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국이나 중국 내 대도시에 진출했던 사람들은 다시 귀향을 한다 해도 할일이 없어 농촌에 다시 정착하지 못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해림진의 SB촌에서는 BD집단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도시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조선족 마을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BD그룹 농공상 총회사 총경리(사장)와의 면담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BD그룹은 SB촌을 모체로 한 향진기업으로 농민들이 주류 성원입니다. SB촌을 놓고 볼 때 80% 이상 가구에서 한국에 진출하였고, 외국에 진출한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큼니다. 또한 많은 조선족 마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촌에서 먼저 손을 써서 농호를 폐경시킨 다음 정부에 토지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40헥타르에 10동, 2,500m 평방에 5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건설 당시 분양이 되겠는가 걱정을 하였지만, 학교를 끼고 있고 시내에 가까운 우세가 있기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에게는 호구를 옮겨준다. 입주 500호 가운

데 본촌 원주호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로 해림지역 농촌에서 이주해온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근 산시진의 조선족 소학교 4개가 폐교 되어 SB 조선족 소학교로 학생이 모이는 현상과 관련된다. SB소학교의 학생수는 현재 대략 870명이다. 원래 해림진에 있던 7개의 소학교도 현재 3개로 통폐합된 실정이다. SB촌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취업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선족 미식거리를 만들어 식당 30개가 개업을 하였다. 그러나 조선족 고용에는 별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은 임금이 싼 식당 종업원으로는 취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BD그룹에서는 한국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98년 이후 4개의 한국기업이 입주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는 생태농업을 도입하고, 해림시에 조선족 시장(서시장)을 건설하고, 민속촌을 건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조선족 집중촌 건설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현재 SB촌의 원주호는 578호로 인구는 2,370명이고 아파트 구역 인구까지 합하면 4,300명가량 된다. 이들 가운데 출국 인원이 1,036명, 국내 도시 진출자자가 310명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흑룡강성 내의 다른 조선족 진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사례 12: 해림시 OS촌

해림시 시내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OS촌은 현재 118호에 444명의 본촌 호구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곳 호구를 가지고 다른 곳에 나가있는 가구는 18호로 총 호구원수는 60여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무호구 입주 가구는 8호이고 지난 10년간 호구 이주호는 43가구로 집계되어 있다. 그 가운데 27가구는 인근의 해림시로 갔고, 나머지는 목단강, 연변 등지로 떠났다. 현재 마을에는 빈 집이 드문드문 눈에 띈다.

OS촌은 인근 KK촌과 하나의 행정 촌을 이루었다. 원래 KK촌은 1970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 당시 OS촌에서 분리되었다가 다시 1990년 OS촌에 합병되었다. KK촌에는 약 70호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40호가 나가고 30호만 남아 있는 상태다. OS촌에는 소학교가 있으나 교사가 29명인데 비해 학생수는 27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1-3학년생은 6명에 불과해 2-3년 내에 폐쇄될 위기에 처

8) 가령, 흑룡강 신문에 실린 2002년 9월 22일자 기사 “상지시의 소서울-상지시 조선족 집거구”의 내용을 보면, 해림시와 상지시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규모와 증가 정도, 집거지 형성양태가 유사하다. 이곳에서는 거주호구의 80%가 한국에 진출한 호구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무직으로 직업 안정성이 매우 낮다.

해있다. 3년 전만해도 학생수는 120-130명을 기록하였다. 학교 폐쇄의 위기는 젊은이들의 이혼과 함께 출산력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다. 지난 2년간 이 마을에서는 3명의 출산만이 기록되었다.

<표 2> OS촌에 거주하는 재촌 호구 보유 가구 거주자의 현재 거주 현황, 2002년도 말

| | 총수 | 재촌 거주 | 외지 진출 | 한국 진출 | 타지역 진출 |
|-------|-------|-------|-------|-------|--------|
| 인구 | 445 | 274 | 171 | 128 | 43 |
| 인구/호구 | 3.74 | 2.30 | 1.44 | 1.08 | 0.36 |
| 비율 | 100.0 | 61.6 | 38.4 | 28.7 | 9.7 |

* 타지역 진출자 43명 가운데 33명이 연해지역 진출자이고 일본 진출이 3명임.

우리의 OS촌 가구조사 결과에 따라 호구거주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마을에서는 재촌 호구 인구의 29%가 한국에 진출하고 10%가 기타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진출자와 다른 지역 진출자들 사이에는 인구학적 특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한국 진출자들은 청장년 기혼자가 거의 2/3를 차지하고 미혼자는 20%에도 미달한다. 반면 소위 연해 지역에 몰리는 타지 진출자들은 미혼 여자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총 미혼자의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한다.

<표 3> OS촌 재촌 호구 중 외지 거주자의 거주 지역별 연령층 및 혼인 관련 구성

| | | 한국진출 | | 타지 진출 | |
|-----|-------|------|-------|-------|-------|
| | | 수 | 비율 | 수 | 비율 |
| 노인 | 부부 모두 | 8 | 6.25 | 0 | |
| | 남편만 | 1 | 0.78 | 1 | 2.33 |
| | 아내만 | 8 | 6.25 | 0 | |
| 청장년 | 부부 모두 | 54 | 42.19 | 6 | 13.95 |
| | 남편만 | 11 | 8.59 | 1 | 2.33 |
| | 아내만 | 22 | 17.19 | 1 | 2.33 |
| 미혼 | 남자 | 17 | 13.28 | 13 | 30.23 |
| | 여자 | 7 | 5.47 | 21 | 48.84 |
| 합계 | | 128 | 100.0 | 43 | 100.0 |

OS촌의 호구를 보유한 채 다른 곳으로 가구가 모두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 한국 진출의 경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가구원들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구들의 경우를 보면 한국 진출이 2/3이고 중국 내 거주자는 1/3에 불과하다. 이는 타지 이주 가구의 대다수가 한국 진출자의 가구로 이루어졌고 자녀의 교육이나 다른 이유로 나머지 가족이 이주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OS촌에 호구를 두고 있는 136가구의 535명 추정인구의 35% 이상이 한국에 나가 있고 14% 정도가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한 셈이 된다. 이러한 이주의 결과로 OS촌에는 현재 거주자 274명 가운데 노인인구가 70명이 넘는 수를 차지하고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어린이들이 상당수 보인다. 그리고 청장년층은 찾아보기 어렵다.

OS촌이 흑룡강 농촌 마을의 전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미 위의 연변의 농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중심에서의 거리와 중심과의 관계에 따라, 그리고 마을의 독특한 성격에 따라 마을의 변화 양상은 달라 질수 있다. 가령 본 조사에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수집한 해림시에서 약 25Km 떨어진 오지 농촌인 BS마을의 경우, 이주 호구는 많은데 비해 이입 호구는 거의 없다는 점, 한국 진출자가 총 마을 호구보유자의 28%인데 반해 중국 외지 진출자가 이보다 많은 32%라는 점 등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큰 틀에서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BS마을의 경우는 생략하였다.

VI. 산동성 청도

청도는 1990년에 510만, 2000년에 약 700만의 인구를 가진 산동성 최대 도시로 급격히 성장하는, 황해를 끼고 있는 연해 도시의 하나이다. 청도, 연대, 위해로 대표되는 산동성 연해 도시에 조선족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동북에서 조선족의 이주가 시작된 1980년대 말로 알려져 있다. 이주는 한국기업의 진출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 것은 1993년 한중 수교 직후 한국 기업의 연해 지구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부터였다. 그리고 두 번째 집중적인 이주는 1998년으로 이는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한국에 가있던 근로자들이 대거 귀국하여 원래의 고향이나 기원지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연해 지구로 이주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이곳에 조선족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계속 조선족이 몰려들고 있다.⁹⁾

청도의 조선족 인구는 2002년 말 현재 6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추정 값의 차이는 추정 방법과 조선족 인구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이곳 조선족 지도자들은 호구 취득자가 약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가 직업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계층으로 기업가와 자영업자, 한국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간부급 직원들과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이들과 같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⁰⁾ 이들은 대개 30-50대 기혼자들로서 자영업에 종사하며, 가족과 별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는 주로 젊은이들과 하층 노동력으로 구성된 불안정 유동층이다. 한 곳에 머물기 보다는 계속 직장과 거주를 옮기는 이들의 수도 약 2-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청도의 조선족은 계층적으로는 물론 직업이나 유동성에 있어서도 큰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청도 조선족은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한국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직업이 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영업의 경우 약 절반이 요식업종인데 대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경쟁이 심해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요식업소의 종업원이나 한국 및 조선족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도 매우 불안정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주요 이유는 피 고용자의 기대와 임금 조건이 고용주의 요구나 조건과 거리가 크고, 한족의 임금 수준이 조선족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이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연해 지구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직업소개소에 가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한 직업 소개소장의 말에 의하면 청도에만 직업소개소가 300개 있다고 한다. 청도 이촌 광고지에 나오는 직업소개소만 33개에 이르고, 청도 전체 광고지에는 70여개소가 광고를 싣고 있다.¹¹⁾ D직업소개소에는 매일 평균 10-15명이 일을 구하려 등록을 하고, 그 만큼 소개가 되며, 취업한지 한달도 못되어 다시 찾

9) 흑룡강 신문, 연해소식, 2002년 8월 24일자 기획기사 “한국 기업의 대 청도투자 어디까지 왔나”에는 한국 기업의 청도 진출을 다음의 4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 소규모 시험적 투자 단계: 1992년 9월 한중수교 이전, (2) 투자 급증시기: 1992. 9 - 1997년 하반기, (3) 투자저조기: 97년 금융위기 -1998, (4) 회복 발전단계: 1999년 이후.

10) 중국의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산동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27,800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그들 대부분이 연해지역에 거주하고 그 가운데 2/3이 청도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청도에는 약 18,000 정도의 조선족이 있는 셈이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청도를 포함한 대도시 거주 조선족의 센서스에서 누락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00년 이후 조선족의 연해지역으로의 이주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1) 조사시점 1년 2개월 전인 2001년 11월 22일자 흑룡강신문 기사 “산동반도 겨례사회 인재유통 큰 몫 담당”에는 약 100개로 나와 있다.

아오는 사람이 1/3을 넘는다고 한다. 초중 이하의 학력을 가진 젊은 층에서는 한달에 3번씩 등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업소개소에서는 크게 구직자를 셋으로 분류한다. “남자”, “아줌마”, “아가씨”가 그것이다. 대개 숫자도 3등분되지만, 원하는 일의 종류와 고용자의 요구도 이러한 구분과 일치한다. 남자의 고용기회가 적으며 자영업도 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다. 아줌마는 식당이나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일에 남자의 고용은 기피한다. 젊은 여성들은 주로 서비스업을 선호하여 유흥업소나 성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이들의 고용은 극도로 불안정하다.¹²⁾

청도 조선족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청도를 포함한 연해지구가 조선족의 새로운 등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이곳 조선족 공동체의 성격은 기존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 청도의 조선족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조선족 공동체의 성격도 다르다. 그 가운데 이창구 이촌에 조선족이 약 2-3만 거주하는 것으로, 조선족 자영업체가 약 5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¹³⁾ 이곳은 또한 한국 기업의 수는 적은 대신 중국의 틈새시장을 노리고 들어온 한국 자영업자들의 수가 비교적 많은 곳이다. 즉 한국과 조선족의 품물이 한데 어울린 곳이기도 하다. 반면 교남과 같은 곳은 한국 기업과, 공장, 이와 연관된 비교적 규모가 큰 조선족 기업이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성양 같은 곳은 한국 공업단지가 들어선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한국인, 조선족 기업인들, 조선족 노동자들이 별도의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다. 따라서 이촌과는 달리, 활기찬 조선족 공동체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우리가 방문한 청도 이촌에는 조선족 시장이 여러 형성되어 있다. 이촌 농산물 및 식품 시장의 한쪽에 조선족 식품 매대가 40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소위 “연변거리”로 불리는 조선족 상가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인근에 조선족 백화점이 2002년 말에 개장을 하였다. 그리고 최근 조선족 교회가 세워져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도에 다른 지역에서 관찰되는 조선족의 집합 거주지(집거지 또는 집중촌)는 없다. 개별적으로 한족과 섞여 살고 있다. 2000년 이후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조선족이 집중적으로 입주하는 현상이 관찰되지만,¹⁴⁾ 조선족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조선족의 비율은 매우 낮다. 따

12) 그 사정은 2002년 5월 25일자 흑룡강신문, “울고 웃는 취직현장: 청도진출 조선족 인력시장 조망” (강현철) 참조.

13) 2001년 12월 29일자 흑룡강 신문 “연해 조선족 기반 다져가자” 라는 이진산의 글에서는 이촌의 조선족 기업을 100여개로 보고 있다. 신문사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수치를 인용해 현지 사람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크다.

14) 가령 2000년 이창구의 백통화원에서는 조선족 100여 가구가 입주하였다. 위의 글 참조.

라서 친한 조선족들 사이에도 거리감이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고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 간섭하지도 않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현재로 조선족 아파트촌의 건설 시도도 없다. 청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립 소학교가 이촌에 세워져 곧 초중과정까지 개설되지만 학교가 조선족 공동체 의식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

청도를 중심으로 한 연해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조선족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곳에서는 조선족이라는 용어는 듣기가 어렵다. 조선족은 스스로를 “교포”라고 하여 자신들을 다른 곳의 조선족 또는 그들 기원지의 조선족과 구분한다. 이는 원래 한국인들이 그들을 중국 교포라고 부른데서 기인하지만, 그들이 이 말을 선호하는 것은 스스로가 조선족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인들은 조선족을 비하하는 말인 “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인들과 접촉이 많은 조선족, 한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서 관찰되는 조선족의 “교포 정체성” 확산은 앞으로 중국 정부의 조선족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청도의 조선족은 동북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요녕 출신자는 찾기가 어렵다. 그것은 요녕 출신자들은 대개 심양과, 대련, 그리고 천진으로 이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요녕 사람들은 요녕 이외의 관내 지역으로의 이주 성향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이주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은 연변이다. 1990년 조선족 가운데 연변 지역 거주자는 43%에 달했다. 그러나 청도 조선족 소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출신지 구성에 따르면 연변 출신은 30%에도 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연변 사람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청도와 같은 새로운 이주 사회에서도 기원지별 지역의 식이 아직 강하고 기원지의 연결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연변 지역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연길로의 이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연해지역의 이주자의 대부분은 흑룡강과 연길 이외의 길림 지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흑룡강성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소학교 학생의 출신지역 구성을 보면 60% 정도가 흑룡강 출신이고, 길림이 20% 정도라고 한다. 1990년 센서스에 따르면 조선족 가운데 흑룡강 거주자는 23%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흑룡강 조선족은 다른 지역 조선족에 비해 연해지역 이주 성향이 3배 이상 높은 셈이 된다. 그것은 아마도 길림성의 경우 연

길, 요녕으로 이주지가 분산되는 반면, 흑룡강에서는 지리적으로 연길이나 요녕을 연해지역보다 선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또한 조선족 신문 가운데 흑룡강신문만이 연해지역 특히 청도에 진출하여 정착에 성공하였다는 사실도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중국의 조선족 신문 가운데 흑룡강 신문만이 연해지역 판을 특별히 발간하고, 그 이외에도 흑룡강 신문은 “가이드 차이나”를 발간하여 중국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기업과 조선족의 진출과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¹⁵⁾ 흑룡강 신문에서 발간하는 이들 간행물 들은 조선족 이주 희망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흑룡강 신문의 독자가 주로 흑룡강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과 흑룡강 조선족이 다른 지역 출신자에 비해 매우 높은 청도를 비롯한 연해지역 진출 성향을 보이는 현상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으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 다른 조선족 신문에서는 연해지역 조선족과 한국 기업에 관한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VII. 맺는 말

오늘 날 조선족 거주지역의 모습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오랜 동안 안정되어 있던 많은 농촌 마을이 급속한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조선족 거주 지역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오던 소도시 지역은 새로운 조선족 집중지역으로 탈바꿈하거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선족은 또한 동북3성을 넘어 전 중국으로 흩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중심도시와 새로이 형성된 산업도시, 한국을 바다를 대하여 마주하고 있는 산동성 연해지역 도시에 새로운 형태의 조선족 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도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또한 조선족 공동체의 현재 변화의 모습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 주요 이유로는 관련 통계 자료의 부재와 함께 이를 보충할 사례연구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기존 조선족 마을과 지역들, 새로이 형성되는 집거지들을 사례로 하여, 현지방문 및 심층면접을 통해, 조선족 마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방문 지역은 크게 연길을 포함한 연변지역, 요녕성의 심

15) 흑룡강 신문이 연해지역에 진출한 것은 1994년이고 연해소식을 창간하여 매일 연해지역에 배포하고, 흑룡강 신문 부록으로 주1회 타 지역 흑룡강신문 독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말이다. 그 이전에 연변일보와 요녕의 조선문보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양과 인근 농촌지역, 흑룡강성의 목단강 일대 및 산동성의 청도로 구성되었다. 이들 지역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조선족 공동체의 변화의 유형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와 농촌 사이에, 그리고 같은 농촌이라도 거주지의 성격에 따라 공동체의 변화 양상이 다르다. 일차적으로 지역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소위 오지 농촌에서 주민의 이주가 먼저 나타나며,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오지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가 노인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처의 한족 마을에 살던 조선족들이 옮겨와 이곳의 빈 집이 채워지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과 원주민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도시 인근의 농촌 마을은 기존 주민의 이탈은 많지만, 오지 농촌에서 이곳으로 호구를 옮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호구수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실질적인 농촌 해체의 현상은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도시에 나가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온 총각 청년들은 보이지만 미혼 여성은 찾기 어렵다.

조선족 중심도시 또는 중국의 대도시 인근의 조선족 농촌지역에서는 조선족 공동체의 근교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연길 바로 외곽의 농촌은 자체적으로는 연길과 외지로의 이주자가 많지만, 대신 연길을 생계지로 하는 외지 젊은이들과 연길의 돈 많은 노인들의 거주지가 되고 있다. 한편 심양 인근의 조선족 농촌에는 요녕은 물론 길림이나 흑룡강의 여러 지역에서 조선족이 몰려들고 있다. 이에는 마을의 개발계획과 조선족 유치를 위한 아파트 건설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서탑과 같은 심양 시내의 조선족 마을은 정부의 개발계획과 지역 발전에 따라 해체되고 그 주민들은 다른 한족 지역으로 흩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조선족 농촌의 해체는 인근 지역 중심 타운에 새로이 조선족 집거지를 형성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집거지는 기존의 농촌과는 달리 자족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조선족 상가를 만들고 기업의 유치를 시도하지만, 이곳에 새로 이주해온 가구들은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촌 마을의 해체와 새로운 도시적인 집거지 형성과 관련해서는 늘 자녀 교육의 문제와 경제적 성공이 언급된다. 그리고 자녀 교육의 문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촌학교의 폐쇄를 그 출발로 한다. 학생들은 인근 중심지의 조선족 학교로 옮겨야 하고, 따라서 중심적인 학교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조선족이 모이게 되고, 조선족 집중촌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좋은 교육 조건을 앞에 내세우게 된다. 그러나 계속되는 조선족 아동의 감소는 이들 중간 도시나 지방 타운의 조선족 집거지 형성과 지속의 한계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이동

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주로 대도시나, 신흥 산업도시, 연해지역으로 가거나 한국으로 가는 경향이 강하다. 거의 모든 한국 노동 이주자들은 중국으로 돌아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경제활동 관련 이주자들은 생활조건과 경제적 조건이 좋은 도시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한국 이주자들도 점점 원래의 고향지역 보다는 경제적 기회를 찾아 연해지역이나 다른 대도시 지역을 새로운 투자 및 정착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청도의 조선족 집중현상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조선족의 경제적 기회가 한국 기업의 진출과 커다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의 양상변화는 앞으로 조선족의 새로운 집거지 형성과 집거지의 안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은 이동에 의해 연결된다. 조선족의 경우, 이들의 관련성은 지역별로 뚜렷이 차별화된다. 한국 이주자들을 제외하면, 연변지역 사람들의 이출지는 연길과 동북3성 이외의 관내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연변 이외의 길림지역 이동자들은 심양을 중심으로 한 요녕 조선족 집거지와 산동의 연해지역으로 몰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요녕 사람들은 주로 요녕 안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흑룡강성에서는 주요 목표지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내지역의 대도시로 되어있고, 심양 및 대련 등 요녕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다수 발견된다. 반대로 조선족을 받아드리는 지역에서 보면, 심양 인근의 조선족 집중촌은 주로 요녕의 이주자들과 길림과 흑룡강 사람들의 이주 목표지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청도는 흑룡강성 이주자들이 절대적 다수를 점하고 있고, 다음이 길림, 연변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집거지의 형성이 기존의 공동체적 연결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종합적으로, 오늘날 조선족 공동체의 재구조화는 조선족의 중심이 단핵, 즉 연길을 포함한 연변 하나에서, 중국 여러 곳에 각기 성격을 달리하는 중심들이 서로 경쟁하는 다핵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무원 인구조사판공실과 국가통계국 인구와 사회과기통계사(중국)(2003), 《중국 2000년 인구조사자료》, 북경: 중국통계출판사. (중문).
- 국무원 인구조사판공실과 국가통계국 인구통계사(중국)(1993), 《중국 1990년 인구조사자료》, 북경: 중국통계출판사. (중문).
- 김두섭(2003), “연변조선족 사회의 최근변화: 사회인구학적 접근”, 《한국인구학》 26-2.
- 김현동·주인형(편)(1999), 《재중동포사회 기초자료집》, I, II, III. 서울: 재외동포재단.
- 박광성(2003), “한국의 조선족노동자들의 유입과 정착.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편)(2003),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 심혜숙(1994),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및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양옥금(2001), “연변조선족의 사회문제: 인구감소 현황과 그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연변연구센터, 《한민족의 공동체 시각에서 본 연변 조선족의 현실》 (심포지엄 논문집).
- 연길시 통계국. 해당연도, 《연길 통계연감》, 북경: 중국통계출판사.
- 이동춘(2002), “21세기 중국 조선족 집중촌 건설과 특색 민족문화경제 기반 구축”, 제9회 조선족 발전 학술 심포지엄과 워크숍 / 제1회 중한 특색 경제기술 합작 교류회. 북경.
- 중앙민족대학 한국문화연구소 외(2002), 《제9회 조선족 발전 학술심포지엄과 워크숍》, 북경: 중앙민족대학 한국문화연구소.
-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연변의 조선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